

제1차 신학포럼

설교에서 인식의 자동화와 습관화 극복을 위한 제언: 설교내용을 중심으로

- ❖ 발표 : 이승우 박사 (Ph. D., Stellenbosch University)
- ❖ 일시 : 2017년 2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 ❖ 장소 : 로템교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4길 31/ 02-2661-7121)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KOREAN SOCIETY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설교에서 인식의 자동화와 습관화 극복을 위한 제언: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이승우 박사

● 학력 : 이승우 박사

영남대학교 경제학 (B. A.)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Stellenbosch University (Th. M.)

Stellenbosch University (Ph. D.)

● 초록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고 왜곡시킨다. 설교에서도 이런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가 발생한다. 설교를 새롭게 하고 설교의 지루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어왔지만 이런 노력들은 지나치게 설교 형식과 방법에 집중되어 왔다. 본 글에서 필자는 설교의 내용을 통해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를 극복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설교의 원천으로서의 성경 그리고 복음은 늘 새롭고 신비로운 특징을 가진다. 설교가 이런 복음의 신비를 제대로 담아 낼 때 설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는 극복될 수 있다.

Automatization and habitualization of perception disturb the ability to recognize objects, and preaching is no exception. Although various ideas have been suggested for refreshing preaching and overcoming boring preaching, these have only focused on preaching forms and methods. Here, the writer suggests that the content of the preaching can help to overcome the automatization and habitualization of perception. The Gospel and the Bible, the sources of preaching, are strange and mysterious, and not in line with normal human perception. When preaching reveals the true meaning of the Word of God, automatization and habitualization of perception can be overcome.

설교에서 인식의 자동화와 습관화 극복을 위한 제언 :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¹⁾

Suggestions to overcome automatization and habitualization of perception in preaching: Focused on content of preaching

이승우 박사

I. 들어가는 글

아무리 아름답고 경이로운 자연 경관도 매일 보면 일상적인 풍경에 불과하게 된다. 즉, 익숙해진 대상은 더 이상 새롭지 않으므로,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고 식상하게 느껴지며 더 이상 우리의 인식을 자극하지 못한다. 이런 현상을 인식(Perception)에서의 “자동화(automatization)” 혹은 “습관화(habitualization)”라고 한다.

인식의 자동화 혹은 습관화는 러시아 형식주의자(Russian Formalist)²⁾ 빅토르 쉬클로프스키(Victor Shklovsky, 1893-1984)에 의해서 제안된 문학기법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에서 등장된 개념이다.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는 지각 가능성(Perceptibility)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인식에 노출된 대상에 익숙해져서 그 대상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익숙해진 우리의 일상은 “하나의 무(無)로 변형됨으로써 사라져 버린다. 자동화란 모든 대상들, 의복, 가구들, 여자 그리고 전쟁의 두려움도 삼켜버린다.”³⁾ 쉬클로프스키는 톨스토이의 일기를 예를 들면서 인식의 자동화와 습관화가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다.

나는 방을 청소하고 나서 방을 한 바퀴 돈 다음 소파로 다가갔다. 그런데 나는 내가 방을 청소했는지 안했는지를 기억해 낼 수 없었다. 이러한 동작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나는 기억해 낼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그걸 기억해 내는 것이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나는 느꼈다. 따라서 내가 방을 청소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만일 의식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았다면 아마도 내 행동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혹은 누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보았다면, 그리고 수많은 인간의 일체의 복합적인 생활이 무의식적으로 전개된다면, 이러한 생활은 없었던 것과 같다(1897년 2월 28일, 레온 톨스토이(Léon Tolstoï)의 일기장. 1915년 12월 니콜스코예(Nikolskoé)의 『레토피스(Létopis)』에서).⁴⁾

일반적으로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는 대상에 대한 인식 노출의 반복 정도에 상관한다. 인식 대상을 접하는 시간과 횟수의 증가에 따라 자동화, 습관화가 발생한다. 인식의 노출 빈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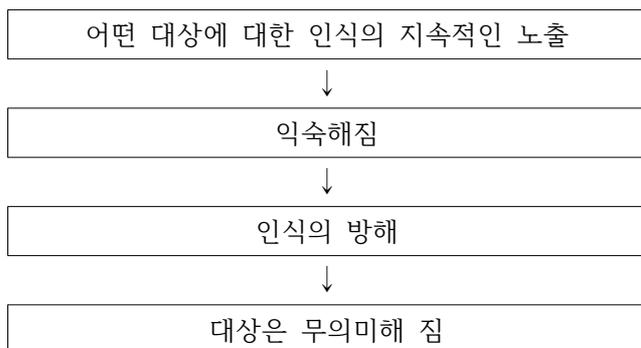
1) 본 글은 본인의 박사논문인 “Defamiliarizing preaching: A Homiletical investigation into the renewal of preaching in the South Korean context”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2) 러시아 형식주의는 1915년경에 러시아에서 시작되어 1920년대를 지배했던 문학이론이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문학과 비문학의 구분을 그들의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고 문학의 특징을 연구했다. 그 결과 문학의 특징을 익숙한 것을 새롭고 낯설게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러시아 형식주의는 짧은 시간 러시아에서 연구된 문학학파지만 구조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문학이론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형식주의의 중심이론인 “낯설게 하기”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러시아 형식주의의 대표적 학자로는 Victor Shklovsky, Boris Eichenbaum, Roman Jakobson 등이 있다.

3) Tzvetan Todorov, *Théorie de la littérature*, 김치수 역,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이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1), 86.

4) Tzvetan Todorov,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이론』, 86.

높을수록 대상에 대해서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가 반드시 시간과 횟수에 비례하는 것만도 아니다. 처음 인지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이미 익숙한 것이라면 자동화, 습관화는 발생할 수 있다. 비슷한 풍경이 새로움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인식의 대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각의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문제를 발생한다. 모든 일상에서 발생하는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는 일상생활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이렇게 무의미해진 일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대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이 문학의 목적이란 주장한다.

그러므로 생활 감각을 다시 갖기 위하여 대상들을 느끼기 위하여, 돌이 정말로 돌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 우리가 예술이라 부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⁵⁾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언어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들은 언어를 일상적 언어(practical language)와 시적 언어(poetic language)로 구분했다. 일상 언어는 청자에게 새로움을 주지 못한다. 일상 언어는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빅토르 쉬클로프스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결국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파도의 속삭임에 익숙해져서,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는다. 이런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우리들이 말하는 언어를 거의 듣지 않는다. [...] 우리는 서로 바라보지만 look,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주의 깊게 쳐다보지는 see 않는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시들어 버려서,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단순한 인정 recognition 뿐이다.⁶⁾

때문에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평범해진 일상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시적 언어에 집중했다.

기법에 초점을 맞추는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문학을 언어의 독특한 사용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언어의 독특한 사용은 '실용적'인 언어로부터 이탈하여 왜곡시킴으로써 가능하

5) Tzvetan Todorov,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이론』, 87.

6) Viktor Sklovskij. *Literatura i Kinematograf* (Berlin, 1923), 11, Victor Erlich, *Russian Formalism: History, Doctrine*, 박겨용 역, 『러시아 형식주의 역사와 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3), 226에서 재인용.

다고 보았다. 실용적 언어는 의사소통 행위를 위하여 사용되는 반면, 문학적 언어는 전혀 실용적 기능을 갖지 않은 채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다르게 보도록 만들어 줄 뿐이다.⁷⁾

그리고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된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낯설게 하기 (Defamiliarization)”를 제시한다. 익숙해진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문학 기법으로서의 낯설게 하기는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핵심 개념이다. 낯설게 하기는 친숙하고 익숙해져버린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식의 어려움과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구현된다.⁸⁾ 다시 말해, “인식의 지연(impeding perception)”을 만들어 냄으로써 자동화, 습관화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Resseguie는 언어유희(wordplay), 불규칙적인 리듬과 운을 사용(deliberately roughened rhythm), 상황의 왜곡(deformed context), 새로운 관점(novel point of view), 특이거나 돌발적인 행동(strange behavior and indecorous actions), 특이한 언어 사용(startling language or unusual figure of speech) 등을 낯설게 하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⁹⁾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일상은 문학이 되고 독자나 청자는 익숙해진 대상을, 그래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II. 펴는 글

1. 설교에서 발견되는 인식이 자동화, 습관화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인간의 인식행위의 모든 범위에서 나타난다. 인간의 활동과 인식이 작용하는 일에 자동화, 습관화는 늘 발생하게 된다. 설교도 예외일 수 없다. 비록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영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자동화, 습관화는 피할 수 없다. 설교는 하나님, 성령의 사역인 동시에 인간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직후에 설교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본문은 어디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가 중요한 이유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청중들에게 익숙한 설교라는 행위는 더 이상 그들의 인식 속에 각인되기 어려울 수 있다. 매주 반복 되는 예배 속에서 청중들의 인식 속에서 자동화되고 습관화되어 새롭게 인지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교에서의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가 발생하는 양상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설교의 4가지 요소를 말한다. 설교자, 본문, 하나님, 청중이 그것이다.¹⁰⁾ 이 4요소 중에서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은 인간과 관련된 설교자와 청중의 인식 부분이다. 설교자는 설교 사역과 청중, 그리고 설교 본문에 대해서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를 경험한다. 청중 또한 설교를 들을 때 인식의 자동화와 습관화를 경험한다.

7) Raman Selden, *A Reader's Guide to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현대문학이론연구회 역, 『현대 문학 이론』(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7), 21.

8) James L. Resseguie, "Automatization and Defamiliarization in Luke 7:36-50". in *Literature and Theolog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137.

9) James L. Resseguie, "Automatization and Defamiliarization in Luke 7:36-50", 137-138 ; Lee T. Lemon & Marion J. Reis, *Russian Formalist Criticism: Four Essay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5), 5.

10) Johan Cilliers, *The living voice of the gospel: Revisiting the basic principles of preaching* (Stellenbosch: Sun Press, 2004), 22-24; Thomas G. Long, *Witness of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22-23; Fred B. Craddock,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22-30.

1) 설교자가 성경본문을 대할 때

설교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시작된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의 시작부터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본문을 대하게 될 때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본문에 대한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가 발생하게 되면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잘 알고 있는 본문들, 많이 봤던 본문들, 예전에 설교했던 본문들을 접할 때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가 발생하게 되고, 그 본문들은 더 이상 설교자에게 올바르게 인식되기 어렵다. 마태복음 28장 18-30절¹¹⁾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은 선교의 메시지로 많은 설교자들에게 자동화되고 습관화 되어 있다. 이미 이렇게 인식된 본문은 더 이상 새롭게 다가오지 않게 되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으로 규정하고 인식하는 것도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의 예가 될 수 있다.¹²⁾

일반적으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익숙한 본문을 대할 때 본문을 다른 성경 버전으로 읽어볼 것을 제안한다. 이런 노력들은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를 극복하려는 노력들 중 하나이다. 새로운 버전은 익숙해진 본문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영어와 같은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을 사용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2)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설교할 때도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설교는 위대하고 영광스런 소명이다.¹³⁾ 설교는 교회의 심장이며¹⁴⁾ 교회 활동 중에서 가장 희망찬 행위이다.¹⁵⁾ 이런 설교 사역에 임하는 설교자의 자세는 늘 신중하고 진중해야 한다. 로이드 존스는 위대한 설교자일수록 설교하는 일에 더욱 주춤거리고 조심스러워 할 것이라고 했다.¹⁶⁾ 설교는 단순한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행위이며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사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 주일 설교하다보면 결국 설교 사역에 익숙해지고 설교 사역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 사실 한국 설교자들에게 설교 횟수는 지나치게 많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 설교자가 일주일에 13번 이상을 설교한다고 한다.¹⁷⁾ 물론 이 통계에는 심방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비공식적인 설교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설교자가 지나치게 많은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설교자가 설교 사역에 대한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 할 수 있다. 목회 연수가 높은 목회자일수록 이런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사실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방식으로든 설교에 관여하시며 그분의 음성은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전제나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다.”¹⁸⁾ 하지만 설교 사역에 익숙해진 설교자는 하나님을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

11)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20절)

12) 마태복음 28장이나 고린도전서 13장, 히브리서 11장의 주제를 선교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이런 선이해가 본문의 해석하고 주해해야 하는 설교자에게 새롭게 다가가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13) Marty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서문강 역, 『목사와 설교』 (서울: CLC, 1993), 11.

14) Johan Cilliers, *The living voice of the gospel: Revisiting the basic principles of preaching*, 이승진 역,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 (서울: CLC, 2014), 44.

15) Johan Cilliers,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 45.

16) Martyn Lloyd-Jones, 『목사와 설교』, 140.

17) 목회와 신학, 『목회와 신학 총서 01: 한국교회 설교분석』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118.

이 무뎠을 수 있다. 설교는 일상의 일반적인 행위가 되고 의미 없이 내뱉는 설교적 표현에 더 이상의 열정이 담기지 않게 된다. 경험 많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능숙해지지만 이런 능숙함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부름 받은 일이 무엇인가를 감지하고는 그 일의 두려움을 너무나 느낀 나머지 그것에 위축되는 사람”¹⁹⁾이라고 역설한 로이드 존스의 조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설교자는 설교 사역에 대한 자동화, 습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재인식하려고 애써야 한다. 자동화, 습관화된 인식에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

3) 설교자가 청중을 대할 때

설교자가 청중을 대할 때에도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설교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설교 사역뿐만 아니라 설교의 대상인 청중에도 익숙해지게 된다. 청중은 설교자가 들려주는 유익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다. 청중은 하나님의 앞에서 서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관계를 맺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²⁰⁾ 이런 청중은 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동반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설교자가 청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 청중은 단순한 무리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청중은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한 사람의 개인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설교는 실제적인 대화를 나누지는 않지만 매우 인격적인 대화이다.²¹⁾ 하지만 청중에 대한 자동화, 습관화가 발생하면 이런 인격적인 대화는 사라지고 청중은 익명의 무리로 전락해 버린다. 설교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식하고 배려하던 설교자는 더 이상 청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²²⁾ 또한 설교자는 청중을 단순하게 수동적 청자가 아니라 설교 사역의 동반자로 대해야 한다. 설교자는 청중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청중으로부터 나온 존재이다.²³⁾ 하지만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는 이런 청중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고 배려를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청중에 대한 자동화, 습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중과의 소통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청중 개개인과 소통을 늘리고 그들과 인격적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심방이나 소그룹 모임 같은 소통의 창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4) 청중이 설교를 들을 때

청중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설교에 대한 청중의 인식에 자동화, 습관화가 발생한다. 매 주일 같은 시간, 같은 교회 예배에 같은 사람들과 참석하여 같은 설교자가 전하는 비슷한 설교를 듣는 상황은 청중의 설교에 대한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하다.²⁴⁾ 물론 이런

18) Johan Cilliers,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 57.

19) Martyn Lloyd-Jones, 『목사와 설교』, 141.

20) 이승진, “청중에 대한 설교학적 이해”,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6권 (2003:가을): 63.

21) James W. Cox, *Preaching*, 원광연 역, 『설교학』 (경기도: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1994), 25, 65-66.

22) 여기서 말하는 배려는 청중의 필요와 요구에 일방적으로 맞추는 인기영합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과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청중의 고민과 필요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배려를 말한다. 설교자는 청중을 설교에서의 중요한 요소이며 설교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설교사역에 임해야 한다.

23) Thomas G.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Second Edi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1-8.

24) 물론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청중이 매주 똑같은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청중들이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를 경험하기에 충분하다.

설교적 상황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가 불러오는 익숙함에는 긍정적 요소가 분명 존재한다. 예배 상황에서 익숙함은 편안함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익숙한 설교 내용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익숙함에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 같은 부정적인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긍정적 면은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유지해야겠지만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익숙함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어떤 부분에서 설교에 대한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는 청중 자신들이 더욱 더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가짐으로 극복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청중이 설교를 들을 때 나타는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는 청중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설교자들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이런 노력들이 신설교학자들을 통해서 연구되어 왔다.

2. 설교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들과 그 한계

지금까지 설교를 새롭게 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다. 어떤 면에서 이런 노력들은 청중이 설교에 대해서 가지게 된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²⁵⁾ 특별히 신설교학에서 이런 특징들이 더 많이 발견된다. 신설교학은 전통적 설교학에서 나타나는 청중의 설교에 대한 지루함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청중은 전통적 설교학이 지향하는 소통 방식에 더 이상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시대와 청중의 변화는 언어, 소통의 방식 그리고 설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전통적 설교방식은 이런 인식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 종교개혁을 지나 수백 년 동안 고착화 된 설교법은 더 이상 청중에서 새로움을 줄 수 없었다. 즉, 전통적 설교방식이 청중들에게 자동화, 습관화 되어 버린 것이다.

1) 신설교학의 지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신설교학은 전통적 설교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고대수사학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 온 전통적 설교학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교 진행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청중을 설득하려는데 관심을 가져왔다. 신설교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설득의 과정은 청중과 소통하거나 청중을 배려하기 보다는 화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되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의 문제는 청중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전통적 설교학에서 청중은 수동적인 청자일 뿐이다. 설교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잘 듣는 의무가 청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런 구조 속에서 청자의 자동화, 습관화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이성적이고 논리적 방식을 중시하는 전통적 설교법은 시대의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설교에서 청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는 청중이 설교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익숙해지고 식상해진 이성 중심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이 강조되는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청중의 인식에 새롭게 다가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중은 설교를 진부하고 지루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기 시작했다.

결국 신설교학은 설교에서의 이성적 설득보다는 말씀의 체험을 강조했고, 청중을 배려하고 청중을 설교의 과정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또한 내러티브 형식을 강조하면서 이성적 설득과 명제적 진술보다는 이야기식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다. 이런 신설교학은 시대의 변화에 맞춘 설교관점을 제시하여 전통적 설교-지루하고 진부한 설교를 극복하고자 했다.²⁶⁾

25) 설교를 새롭게 하려는 모든 노력들을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를 극복하려는 것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설교학적 노력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부분도 있고, 이런 관찰은 설교가 당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설교학의 한계점

신설교학은 청중의 지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교 형식에 집중했다. 이러한 설교 형식에 대한 집중은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었다.²⁷⁾ 이것은 설교의 관심이 내용에서 형식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²⁸⁾

지루함을 극복하고 청중에게 더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다가가려는 신설교학의 노력은 어느 정도 결실을 맺는 듯 보였다. 신설교학적 설교법들은 효과적인 설교 전달방법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형식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피하지는 못했다. 또한 단순하게 설교를 잘 전달하는 것으로 청중이 변화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Campbell은 설교의 기교나 형식만으로는 청중에게 설교를 새롭게 들리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한다.²⁹⁾ Campbell은 신설교학이 설교 형식에만 집중한 나머지 성경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결국 Campbell의 관점에서 볼 때 설교학의 관심은 설교 방법론에서 다시 설교 내용으로 옮겨와야 한다. 지나친 설교 형식에 대한 집중은 설교 내용을 소홀히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³⁰⁾

한국적 상황에서는 아직 신설교학적 방법론들이 많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설교학의 방법론들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형식과 설교법들은 청중들이 설교를 새롭게 느끼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형식에만 집중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결국 설교의 형식과 내용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설교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설교 형식을 무시하고 등한시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실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를 지적했던 러시아 형식주의도 신설교학과 같은 비판을 받았다. 그들도 지나치게 형식에만 집중했는데 이는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들은 결국 러시아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³¹⁾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낯설게 하기를 설교학적 적용에서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방법론에만 머무를 필요가 없다. 인식의 지연이라는 개념은 다른 방향으로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설교의 내용이다. 내용을 통한 설교 낯설게 하기, 인식의 자동화의 극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3. 설교 내용을 통한 설교 새롭게 하기

우리의 관심은 설교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있어야 한다. 설교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교의 방법뿐만이 아닌 내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Campbell은 설교의 기교나 형식만으로는 청중에게 설교를 새롭게 들리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한다.³²⁾

26) James W. Thompson, *Preaching Like Paul: Homiletical Wisdom for Toda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8.

27) Richard L. Eslinger, *A new hearing : living options in homiletic method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13.

28) Charles L. Campbell, *Preaching Jesus: The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Grand Rapids: W.B. Eerdmans Pub, 1997), 117.

29) Charles L. Campbell, *Preaching Jesus: The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247.

30) 이현웅, “현대 기독교 설교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분석평가와 한국교회에서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제26호(2011): 212.

31)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탄압으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러시아를 떠나 학문적 연구를 계속하던지(체코), 형식에만 집중하던 이론을 수정하여 러시아에 남아 활동을 계속했다(바흐친 학파).

32) Charles L. Campbell, *Preaching Jesus: The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247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설교의 내용이 청중에게 설교를 새롭고 신선하게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셨다.

1) 예수님의 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사람들은 큰 반응을 보였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어떤 이들은 새로움에 매우 놀랐으며 심지어 어떤 무리들은 그 가르침에 격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청중들의 반응이 확실하게 있었다. 이런 반응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전달 방식 때문만이 아니었다. 물론 예수님은 다양하고 신선한 방법들을 사용하셨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이 완전히 새롭거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수사적 기교들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반응한 핵심적인 이유는 가르침의 내용에 있었다. 결국 예수님은 전달하는 내용을 통해서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이런 예들은 다양하다. 마태복음만 살펴봐도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7장 28-29)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마태복음 13:54)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마태복음 22:33)

산상수훈에서 무리들이 놀랐다는 표현은 매우 놀랐다 혹은 압도되었다는 의미로 헬라어 “엑세플레손토(ejxephvssonto)”는 미완료로 사용되어 있다. 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압도된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의미이다.³³⁾ 그만큼 그분의 가르침의 효과는 분명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란 이유를 ‘권위’와 ‘차별성’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7:29)

권위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모습 때문에 언급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22, 28, 32, 39, 44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며 기존의 해석을 거부하고 자신의 권위로 가르침을 주셨다.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은 기존의 선생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져왔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지도자들과 달랐다. 이 차별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였다. 예수님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셨고(기존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셨다. 이런 예수님의 새로운 관점과 해석은 기존 가르침에 식상해있는 청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인식의 지연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개념에서 보자면 “낮설게 하기” 효과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 해석이 무조건적인 새로움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것이

33) Donald A. Hagner, *World Biblical Commentary: Matthew 1-13* (33A), 채천석 역, 『WBC 마태복음(33) 1-13』 (서울: 솔로몬 2006), 355.

언제나 좋고 옳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신 것은 단순히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올바른 해석, 다시 말해 율법의 올바른 의미였다.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율법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관점으로 왜곡했던 성경해석을 바로잡아 주신 것이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율법 교훈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 의미를 사람들에게 되새겨 주셨고 이에 대해 사람들은 반응했다.

사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외적인 부분에만 치중하는 교훈들은 인간의 본성과 어울리는 것이다. 은혜-값없이, 이유 없이 주어지는-는 인간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노력해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인간에게는 편하고 익숙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런 가르침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가르침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다. 오늘 날에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성경 해석과 본문 왜곡이 설교단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김창훈은 요즘 설교의 문제 중 하나가 성경 해석의 왜곡이라 진단하고, 실제 오늘날 올바른 성경해석을 설교에서 듣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한다.³⁴⁾ 오늘의 설교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성경 본문의 본질을 추구함으로써 청중들을 깨울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또 회복해야 할 복음의 본질, 성경의 핵심 특징은 무엇인가?

2) 복음의 특징

복음은 하나님의 이야기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며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간에게 신비롭고 새로우며 생경한 것이다. 복음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비밀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없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것이다. 복음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간에게 익숙해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23-24)

복음이 제시하는 길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 물론 복음과 성경이 낯설고 생경한 것만은 아니다. 성경 속에서도 인간의 희로애락이 담겨있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인간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자들은 인간의 이야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을 찾아 드러내야 한다.

3) 익숙해진 복음

우리가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교의 내용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것은 설교에서 인간의 이성에 익숙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신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는 대상에 익숙해질 때 나타난다. 설교에서 자동화, 습관화가 발생하는 것은 설교에서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과 본문의 신비가 드러나지 못

34) 김창훈, “강단 회복을 위한 제안 : (삼위) 하나님 중심적 설교의 회복”,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27권(2013): 122.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교자와 청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동화, 습관화를 하나님과 본문의 영역에서 극복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설교의 형식과 방법론에 집중하면서 이 부분을 극복하려 했다. 이제는 이런 노력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본문의 영역을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설교 속에서 일어나는 자동화, 습관화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왜곡된 성경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속주의, 율법주의, 번영신학, 신비주의, 실용주의 등의 영향은 복음을 복음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세속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인간중심 신학의 영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을 ‘익숙한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복음은 신비이며 타락한 인간에게 늘 생경한 것이다. 복음은 인간의 경험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인간의 예상을 뒤엎고 뛰어넘는다.³⁵⁾ 이런 복음을 다루는 설교도 늘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와야 한다. 하지만 익숙한 복음은 설교에서 이런 특징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설교에서 복음의 신비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교에서 복음은 익숙한 것이 되었고 새로움을 잃어버렸다.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비주의

이승진은 최근 한국교회 신비주의 현상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는 현상으로 알파코스, 방언 열풍, 손기철 장로의 『왕이 기도』, 관상기도 등을 제시했다.³⁶⁾ 이런 현상은 한국교회의 침체를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확인하려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다.

신비주의적 관점은 일면 복음의 신비성을 드러내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신앙관은 인간의 본성에 매우 익숙한 것들이다. 체험하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인간의 본성은 신비주의와 번영신학에 열광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성경적 신앙은 그렇지 않다. 성경적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기대한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브리서 11:1).

(2) 율법주의

많은 설교들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기 보다는 인간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손에서 그분의 권능을 빼앗아오고 있다.³⁷⁾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 본성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뭔가를 하면 그 결과가 주어진다. 식의 설교는 인간의 인식 속에서 습관화, 자동화 될 뿐이다. 이런 율법주의적 설교에 대해서 Cilliers는 그의 책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에서 잘 다루고 있는데 다음의 그의 말은 귀 기울일 만 하다.

또 (성경 본문이 진술하는 대로) 그분의 행동을 자세히 강론하지 않아서 신자들이 하나님 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역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설교에서는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는 주체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서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도록 재촉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³⁸⁾

35) Richard Eslinger, *The Web of Preaching: New Options In Homiletic Method* (Nashville: Abingdon Press, 2002), 38.

36) 이승진, “현대 신비주의 운동과 설교의 대응”, 한국설교학회, 『설교한국』 제4권(2012): 78-81.

37) Johan Cilliers,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 151-158.

38) Johan Cilliers,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 158.

(3) 번영신학

뿐만 아니라 번영신학과 성공주의적 관점은 한국교회의 신앙에 깊이 파고 들어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번영을 기뻐하신다. 하지만 이런 번영이 물질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만 머물러 있다면 성경의 교훈을 왜곡하는 것이다.

세상적인 부와 성공을 원하는 신학은 예수님을 자신의 입맛대로 조정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번영신학에 젖은 설교는 부자가 되기 원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려 노력한다.³⁹⁾ “그러나 사실 우리의 틀에 딱 들어맞는 예수는 우리가 찾는 그분이 아니다. 복음은 다른 예수를 선포한다.”⁴⁰⁾ 타락한 인간의 욕망은 세상에서의 물질적 풍요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한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 그리스도 등은 이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된다.

(4) 세속화

어찌 보면 위에서 언급한 상황들을 한 마디로 세속화된 교회, 복음의 결과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교회 안에 놓여 있는 심각한 위기적 현상은 무엇이라고 봅니까?”라는 질문에 42.2%의 압도적 응답자들이 “세속화와 물질화 및 영성과 신앙의 약화”라고 답했다.⁴¹⁾ 또한 “현재 한국 교회 안에 세속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까?”라는 질문에 “주목해야 할 정도다”가 49.1%,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다”가 42.2%로 90%가 넘는 응답자들이 세속화 현상을 걱정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⁴²⁾ 한국 교회에서의 세속화는 심각한 현상이며 이런 흐름들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특별히 설교 사역을 왜곡시켰다. 세속화된 교회에서 세속화된 복음이 선포되며 이 복음은 청중들에게 자동화, 습관화 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것이다.

4) 신비한 복음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복음이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중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신비롭고 놀라운 만남의 사건”⁴³⁾을 갖기 위해서다. 진정한 신자는 부자가 되거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신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이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한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설교단 앞에 앉는 것이다. 청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말이 아니다.

수많은 회중들과 특히 신실하고 믿음직한 회중들이 설교로 인하여 침묵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오늘날 설교가 지루하고 자신들의 삶과 무관하며 실망스럽다는 불평을 쏟아내면서 그런 교회에서 점차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당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 미심쩍은 다른 이유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수많은 말들에 지쳤고 오늘날과 같이 속전속결과 즉각적인 소통의 시대에 어울리는 속전속결의 복음을 원하거나 현재 교회가 제공하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원하는 것 같다.⁴⁴⁾

물론 신자들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타락한 본성이 청중들의 마음을 더럽힐

39) 김영한, “영광 신학의 설교와 십자가 신학의 설교 - 오늘날 번영주의 설교 비판”, 한국개혁신학회, 『한국개혁신학』 제26권(2009): 14.

40) Charles Campbell & Johan Cilliers, *Preaching Fools: The Gospel as a Rhetoric of Folly*, 김대진 역, 『하나님의 어릿광대: 복음의 어리석음과 설교의 아이러니』 (서울: CLC, 2012), 139.

41) 목회와 신학, 『목회와 신학총서 09: 통계로 본 한국 교회』, 88.

42) 목회와 신학, 『목회와 신학총서 09: 통계로 본 한국 교회』, 92-93.

43) Johan Cilliers,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 86.

44) Johan Cilliers,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 39-40.

수 있다. 이런 연약함들은 설교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추구할게 만들 수 있다. 설교를 그런 상황일수록 청중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⁴⁵⁾ 설교자는 흑시라도 잊어버린 복음의 신비를 설교 속에서 늘 전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언어를 일상 언어(practical language)와 시적 언어(poetic language)로 구분했다. 일상 언어는 인식의 자동화에 노출되어 있다. 쉽게 익숙해지고 지루해 지는 일상 언어는 시적 언어로 새로워져야 한다. 시적 언어를 통해서 인식은 지연되고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시적 언어는 지각 가능성과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설교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언어가 아닌 시적 언어-다시 말해, 하늘나라의 신비를 드러내는 하늘 언어여야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늘 언어는 방언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에서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 하는 일상 언어가 아니라 복음의 신비를 드러낸다는 의미로서의 하늘의 언어가 필요하다. 하늘의 언어는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전하는 곳에 나타나는 것이다. 설교 속에서 복음의 생경하고(strange) 신비한(mysterious) 특징이 회복할 때 설교에서의 자동화, 습관화는 극복될 수 있다. 인식의 지연이라는 “낮설게 하기” 효과가 발생 하는 것이다.

4. 실제적 제언들

설교 속에서 복음의 특징이 제대로 드러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이야기요 신비하고 생경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본문 자체의 의미만 제대로 드러난다면 설교의 지각 가능성은 제대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설교 속에서 복음의 신비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설교에서 올바른 성경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1) 올바른 해석을 추구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설교에서 올바른 해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는 ‘무엇이 올바른 해석인가?’ 혹은 ‘어떻게 올바른 해석을 할 것인가?’이다. 특별히 자신의 본문해석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두 다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고 이를 설교한다. 하지만 그런 성경 해석들이 상당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 등의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를 극복과 관련해서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는 설교를 위한 해석을 위한 제언에 집중하고자 한다.

(1) 설교에서의 하나님 중심적 관점 회복

지금 설교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적(God-centered) 설교의 회복이다. “하나님 중심적 설교가 내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르고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다.”⁴⁶⁾ 세속주의, 성공주의, 실용주의, 율법주의 등은 모두다 인간 중심적(Human-centered) 사고에서 비롯된 개개의 현상일 뿐이다. 이런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회복해야 한다. 인간 중심적 사고 속에 뿌리 내린 설교는 하나님을 조연으로 전락시켜버린다. 처음부터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욕망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

45) Johan Cilliers,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 139.

46) 김창훈, “하나님 중심적 치유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32권(2014), 83.

이었다(창세기3장).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설교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설교는 인간에게 익숙한 것이다. 하지만 설교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가 회복 되면 설교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익숙해 질 수 없는 분이다.⁴⁷⁾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적 설교는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젖은 청중들에게 새롭고 신비롭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2) 설교에서 하나님 드러내기

설교 속에서 성경의 참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복음의 신비가 회복되고 성경 해석은 올바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복음은 우리의 익숙해진 일상을 새롭게 만든다.⁴⁸⁾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 파수꾼들이다.⁴⁹⁾ 설교는 세상의 연설이나 담화와는 다르다. 설교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설교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세상 여타 가르침이나 교훈들과 차이점이 없게 된다. 설교자는 설교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함으로써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도록”⁵⁰⁾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가? 항상 설교 때 하나님을 언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이 될 때,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된다. 또한 본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드러내는 것이요 결국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3) 신실한 해석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한국 목회자들처럼 바쁜 사역자들은 없는 것 같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설교 사역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할 다양한 업무들이 있다. 하지만 설교를 위한, 특별히 올바른 해석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제시했던 하나님 중심적 관점을 가지고 신실하게 본문을 연구하는 시간 없이는 본문의 참 의미를 드러내기 힘들다. 실제로 “귀하의 설교 사역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은 “다른 사역이 많다”(38.9%)는 것이었다. 그 다음 응답은 “문화 및 사회의 급변”(16.6%), “교인의 설교에 대한 인식 부족”(14.0%) 등의 순위였다.⁵¹⁾ 다른 사역을 줄이는 것이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기에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건강한 설교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신실한 해석을 위한 시간 확보에 관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은 한국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문화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적으로 설교 횟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새벽기도회나 심방에서는 설교를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새벽기도회에서는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제목을 나누거나 큐티 교재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제목을 나누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설교자들 간에 말씀 연구 모임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모임은 본

47) Johan Cilliers,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 94.

48) James L. Resseguie, *The Strange Gospel: Narrative Design and Point of View in John* (Leiden·Boston·Köln: Brill, 2001), 30.

49) Charles Campbell & Johan Cilliers, *Preaching Fools: The Gospel as a Rhetoric of Folly*, 『하나님의 어릿광대: 복음의 어리석음과 설교의 아이러니』, 358-359.

50) Johan Cilliers,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 97.

51) 목회와 신학, 『목회와 신학총서 01: 한국 교회 설교분석』, 34.

문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노회 차원의 모임도 가능할 것이고 친분이 있는 목회자들 간의 모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모임이 공식화 된다면 교회적으로 배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학문적 주석서와 참고

성경본문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해석을 담보할 수 없다. 이 해석과정 속에서도 자동화, 습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설교자가 본문을 대할 때, 자동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경 해석을 위해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필자는 성경 해석 과정에 많은 주석서, 특별히 학문적 수준이 있는 주석서들을 많이 참고하기를 제안한다.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석으로 호크마(29.9%), 그랜드(23%) 주석이 조사되었다.⁵²⁾ 이들 주석은 전문적이고 학문적이라기보다는 설교 작성을 도와주는 적용 중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석들보다는 본문의 의미를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서 더 많은 학문적, 본문해석 중심적 주석을 사용하기를 제안한다.⁵³⁾ 또한 본문을 정한 후, 바로 학문적인 주석서들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문을 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⁵⁴⁾ 주석서를 통해서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세운 후에 개인적인 해석 작업으로 들어간다면 좀 더 의미 있는 본문 해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는 설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익숙함은 사라진다.”⁵⁵⁾ 설교는 인간의 작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설교 준비부터 본문해석, 전달과 그 이후에 청중들의 인식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전 과정이 성령의 조명과 일하심 없이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인간의 언어로는 복음의 신비를 제대로 구현해 내기 어렵다. 김지찬은 설교의 근원적 위기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⁵⁶⁾ 결국 이런 불가능한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⁵⁷⁾ 성령은 설교자를 부르시고 부름 받은 설교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설교자가 설교할 때 청중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일하시며 그들과 함께 세상에서 일하신다.⁵⁸⁾ 본문의 해석과 설교문의 작성, 설교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도 성도들의 삶의 순간순간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설교자에게 더 많은 기도가 요구된다.

Ⅲ. 나가는 글

필자는 설교에서 발생하는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써 설교 방법론과 함께 설교의 내용을 제시했다. 물론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가 설교의 모든

52) 목회와 신학, 『목회와 신학총서 01: 한국 교회 설교분석』, 60.

53) 목회와 신학, 『목회와 신학총서 01: 한국 교회 설교분석』, 69.

54) 많은 사람들이 설교 준비에서 주석서를 참고하는 것은 개인적 묵상 이후에 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설교자가 이미 세워 놓은-잘못되었을 수도 있는-관점을 가지고 주석서를 단순히 이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주석서를 언제 보느냐의 문제는 설교자 개인의 선택일 수 있겠으나 본문 주해 시 안전한 석의 과정을 위해서 주석서들을 먼저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55) Johan Cilliers,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 86.

56) 김지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라 한국 교회 설교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61권(2012): 309.

57) 김지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라 한국 교회 설교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314. ; 오현철, “설교자의 정체성과 성령의 역할”,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41권(2016), 153.

58) 오현철, “설교자의 정체성과 성령의 역할”, 154-163.

문제를 대변하지도 않고 이를 극복한다고 해서 설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설교에서 복음과 성경 본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가 아니어도 설교에서 당연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설교 안에서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에 대한 지적과 이를 설교의 본문과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제안은 설교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설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다양한 세속적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는 설교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의 문제는 설교에서 늘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설교는 다른 일반적인 연설과는 달리 복음의 신비를 담고 있기에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자동화, 습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예와 같이 가르침의 내용 자체가 설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익숙해 질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설교 속에서 인식의 자동화, 습관화는 발생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설교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하지 않고 세속적인 복음, 익숙해진 복음으로 설교를 오염시켰다. 이런 설교의 오염은 이내 싫증 나버리는 식상한 설교를 양산해 버렸다. Cilliers는 설교 속에서 복음의 신비가 사라진 현상을 다음과 같이 꼬집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사건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설교만 하는데, 사실 사람의 말만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설교에 전문가답고 종교적인 연사가 되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가 전달되지도 않고 실현되지도 않고 있다.⁵⁹⁾

이제 우리의 관심을 설교의 방법론과 함께 설교 속에서 복음의 본질 회복에 두어야 한다. 인간중심적 관점을 넘어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 중심적 설교가 필요하다. 이는 설교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자동화, 습관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하나님 중심적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살아날 때 설교의 신비 또한 회복될 것이다.

[참고문헌]

- Charles L. Campbell. *Preaching Jesus: The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 Grand Rapids: W.B. Eerdmans Pub, 1997.
- Fred B. Craddock.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 James L. Resseguie. "Automatization and Defamiliarization in Luke 7:36-50". in *Literature and Theolog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James L. Resseguie. *The Strange Gospel: Narrative Design and Point of View in John*. Leiden·Boston·Köln: Brill, 2001.
- James W. Thompson. *Preaching Like Paul: Homiletical Wisdom for Toda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Johan Cilliers. *The living voice of the gospel: Revisiting the basic principles of preaching*. Stellenbosch: Sun Press. 2004.

59) Johan Cilliers,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 20-21.

- Lee T. Lemon & Marion J. Reis. *Russian Formalist Criticism: Four Essay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5.
- Richard Eslinger. *The Web of Preaching: New Options In Homiletic Method*. Nashville: Abingdon Press, 2002.
- Richard L. Eslinger. *A new hearing : living options in homiletic method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 Thomas G.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Second Edi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 Thomas G. Long. *Witness of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 Charles Campbell & Johan Cilliers. *Preaching Fools: The Gospel as a Rhetoric of Folly*. 김대진 역. 『하나님의 어릿광대: 복음의 어리석음과 설교의 아이러니』 (서울: CLC, 2012)
- Donald A. Hagner. *World Biblical Commentary: Matthew 1-13 (33A)*. 채천석 역. 『WBC 마태복음(33) 1-13』. 서울: 솔로몬 2006.
- James W. Cox. *Preaching*. 원광연 역. 『설교학』. 경기도: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1994.
- Johan Cilliers. *The living voice of the gospel: Revisiting the basic principles of preaching*. 이승진 역. 『설교 심포니, 살아 있는 복음의 음성』. 서울: CLC, 2014.
- Marty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서문강 역. 『목사와 설교』. 서울: CLC, 1993.
- Raman Selden. *A Reader's Guide to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현대문학이론연구회 역. 『현대 문학 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7.
- Tzvetan Todorov. *Théorie de la littérature*. 김치수 역.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이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1.
- Victor Erlich. *Russian Formalism: History-Doctrine*, 박거용 역. 『러시아 형식주의 역사와 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3.
- 목회와 신학. 『목회와 신학총서 01: 한국교회 설교분석』. 서울: 두란노, 2009.
- 목회와 신학. 『목회와 신학총서 09: 통계로 본 한국 교회』. 서울: 두란노, 2011.
- 김영한. “영광 신학의 설교와 십자가 신학의 설교 - 오늘날 번영주의 설교 비판”. 한국개혁신학회. 「한국개혁신학」 제26권(2009): 3-22.
- 김지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라: 한국 교회 설교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61권(2012): 301-334.
- 김창훈. “강단 회복을 위한 제안: (삼위) 하나님 중심적 설교의 회복”.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27권(2013): 121-147.
- 김창훈. “하나님 중심적 치유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32권 (2014): 72-100.
- 오현철. “설교자의 정체성과 성령의 역할”.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41권(2016): 142-168.
- 이승진. “청중에 대한 설교학적 이해”.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6권 (2003): 60-86.
- 이승진. “현대 신비주의 운동과 설교의 대응”. 한국설교학회. 「설교한국」 제4권(2012): 77-117.
- 이현웅. “현대 기독교 설교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분석평가와 한국교회에서의 적용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26권 (2011): 195-249.